

#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 秘密펜 發明의 선두주자

영 골드社 曹玉善 사장



〈曹玉善 사장〉

비밀펜을 發明한 영 골드社 曹玉善 사장은 비밀펜 發明경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20여년 동안 교편생활을 하면서 學生들의 공부方法을 눈여겨 보았죠. 특히 問題集을 풀때 정답에다 표시를 해두기 때문에 복습할 때는 問題보다 답에 눈이 먼저 가게 마련이지요. 당장은 답을 알고 지나가지만 時間이 지나면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答을 表示하돼 보이지 않게 하고 다시한번 問題를 곰곰이 생각해서 풀어보고 난 후에 답을 대하면 훨씬 더 머리 속에 오래 남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學生들의 單語 공부나 問題紙 풀이에 도움이 되는 비밀펜(實用新案 第21947號).

1호펜(入力記憶펜)과 2호펜(發色暗記펜) 두가지 펜이 한세트(수출가격 1달러50센트)로 되어 있는 이 비밀펜은 한마디로 글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보고싶을 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펜이다. 비밀펜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보자.

먼저 1호펜으로 교과서·참고서·문제지 등에 正答 또는 要點을 적어놓는다.

적는 순간에는 글자가 보이지만 곧 사라진다.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할 때 正答이나 要點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2호펜으로 그전에 1호펜으로 적었던 부분을 살짝그으면 正答이나 要點이 나타난다. 나타난 글자가 계속 남아있는게 아니라 1분정도 지나면 또 지워진다.

비밀펜은 성급하게 正答을 보기 쉬운 學生들의 반복학습에 좋을듯.

曹사장은 이 비밀펜의 用途는 매우 多樣하게 쓸 수 있다고 說明한

다. 자기만이 간직하고 싶은 秘密日記를 쓸 수 있고 秘密편지·單語暗記·機密維持·秘表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책·노트·신발 등에 자기 이름을 表示해 나중에 確認할 수도 있다.

현재 이 비밀펜은 市販은 하지 않고 輸出만 하고 있다. 外國人들에게 人氣가 좋아 注文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현재 영골드社라는 會社를 운영하고 있는 曹사장은 비밀펜 외에 어린이용 英語學習書를 開發해 市販하고 있다. 이 學習書는 비밀펜을 사용하여 공부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현재 美國·캐나다·프랑스 등에 輸出하고 있고 필리핀·말레이시아로 부터 注文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내수보다 수출에 주력하는 이유를 묻자 曹 사장은 『우선 外國에서 반응이 좋아 注文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는 흔히 韓國사람들이 發明品에 갖고 있는 선입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 第37回 發明教室

3月 14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3月 14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7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영 골드社 曹玉善사장과 서울컴퓨...○
- ...터자재(주) 梁昌植 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
- ...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的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朴鎔碩 記>...○

## 컴퓨터界의 發明기수

서울컴퓨터資材(株) 梁昌植 사장

『精誠들여 만든 製品, 世界第一 商品되어 우리 所得 올려준다.』

지난 77년 創立, 品質과 소득향상이란 대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서울컴퓨터자재(株) 梁昌植 사장이 내건 사시이다.

이 會社는 人體의 血管 및 신경조직에 해당되는 電子裝備 『와이어』 專門生産業體로 리드와이어, 실드와이어등 Wire Hardness 가공품이 主生産品이다.

梁사장은 『품질 만큼은 명함 내밀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會社는 社長과 工場長 이의 엔 管理者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이 實務者인 동시에 管理者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업무에 자율적이며 성실하고 충실할 수 있다면 구태여 監督과 管理의 기능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梁사장의 주장이다.

『우리 會社는 근무복이 없습니다.

個人的 인격과 個性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人間性을 유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創造性은 자유로운 人間性이 바탕이 될때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신앙에 가까운 믿음입니다.

또 우리會社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요일은 근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의 量보다는 質이 우선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信念이며 社員들 자신의 시간을 위한 그들과의 약속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社員들이 發展할 수 있는 階級에서의 스프링 상매일 뿐이라는 것이 梁사장의 표현이다.

이 會社의 生産設備는 Soldering M/C · 전선기 · Clipping M/C · Cuffling M/C · Salder pot 등 最新裝備을 갖추고 있는데다 종업원들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어 品質이 向上될 것은 懸念 事인.

梁사장은 사업미래에 대한 끊임 없는 구상과 도전이라며 SSM회원으로 加入했으며, S/W를 開發하여 어음거래관계에 관한 데이터서비스



<梁昌植 사장>

업무도 시작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의 다양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技術開發과 創業初期부터 원재료분석등 각종 技術參考資料의 열람에 대하여 中小企業人으로 출몰 느껴왔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중소기업도서관도 개관할 예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情報資料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梁사장은 研究熱도 대단하다. 그는 國內에서 發刊되는 모든 전문지를 정기구독하여 지식의 폭을 넓히고 있다. <8>